

경제

Biz & Economy

광주일보

제17604호 2006년 11월 17일 금요일



건강바람타고 잡곡류 인기

검정콩·흑미·좁쌀·현미…
농협 판매 작년비 14% 늘어



웰빙 바람으로 잡곡밥이 뜨면서 잡곡 판매량 급증 현상과 함께 잡곡밥에도 변화 바람이 불고 있다.

좁쌀을 섞어 만든 좁쌀밥, 검정쌀밥, 팥이 듬뿍 들어간 붉은 밥 등 식탁색깔이 다양해지는가 하면 쌀에 1개의 잡곡을 섞은 종전과 달리 3~4개의 잡곡을 섞고 있으며, 같은 곡류라도 색깔에 따라 선후증이 달라지는 등 변화 주제를 보이고 있다.

농협전남지역본부에 따르면 잡곡판매량은 1월부터 10월까지 19억4천 740만원 어치를 판매, 지난해 동기(17억 830만원)에 비해 14% 신장했다.

광주신세계 등 광주지역 백화점과 할인점에서도 헛바닥 판매량이 지난해에 비해 20% 쓸렸다. 기장(500g) 7천 원, 수수(500g) 4천 원, 밭아찹쌀(800g) 7천500원 등에 활발한 거래를 보이고 있다.

또 팔·수수·현미 등이 배설을 촉진시켜 다이어트에도 도움을 준다는 소문이 퍼지면서 잡곡밥 바람을 더욱 거세게 일으키고 있다.

특히 잡곡밥은 적은 양을 먹어도 쉽게 포만감을 느끼며, 각종의 영양소가 듬뿍

보리찹쌀·흑미·백미·검정콩·차조·약동 등으로 구성됐다.

CJ는 밭아현미밥, 오곡밥을 출시한데 이어 올초 '햇반 찰보리밥'을 내놓아 잡곡밥 데카 고리를 다양화하고 있다.

인터넷 '옥션잡곡'도 '밭아현미 훈합 32곡·총각네 잡곡' 등 다양한 매뉴를 내놓고 소비자들을 유혹하고 있다.

이처럼 잡곡밥이 인기몰이와 함께 변화 바람이 불고 있는 것은 쌀밥에서는 부족한 영양소를 콩(야콩, 검정콩), 조, 팥, 기장 등 갖가지 잡곡을 통해 보완해 줄 수 있다는 점 때문이다.

잡곡이 보완작용을 통해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하고, 산성 체질을 알칼리성 체질로 바꿔주면서 혈액을 맑게하는 효과를 가져다준다.

또 팔·수수·현미 등이 배설을 촉진시켜 다이어트에도 도움을 준다는 소문이 퍼지면서 잡곡밥 바람을 더욱 거세게 일으키고 있다.

광주신세계백화점 관계자는 "잡곡의

웰빙 열풍으로 훈식이 인기를 끌고, 훈식 트랜드에 변화 바람이 일면서 재래시장·백화점·마트·등지의 잡곡 매장을 찾는 고객들이 최근 들어 부쩍 늘고 있다.

들어 있어 굽고 살빼는 다이어트에 비해 건강을 해칠 걱정도 없다.

광주신세계백화점 관계자는 "잡곡의

풍부한 섬유소가 오장육부를 튼튼하게 하고, 신진대사작용을 활발하게 해준다"면서 "건강을 생각하는 가정이 늘어

남에 따라 '잡곡 열풍'과 '잡곡밥의 변화 트랜드'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다"고 말했다. /이종태기자 jtlee@kwangju.co.kr

光銀 창립 38돌 고객 사은대축제

광주은행은 '창립 38주년 기념 고객 사은 대축제'를 오는 30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광주은행은 신규고객을 위한 이벤트로 ▲1천만원 이상 예금고객과 적립식 30만원 이상 가입 고객 ▲대출 1천만원 이상 고객 ▲신용카드 신규 가입 고객 중 추첨을 통해 229명에게 42인치 대형 TV와 김치냉장고 등을 제공할 예정이다.

또 10년 이상 장기거래 고객중 50명을 뽑아 10만원권 백화점상품권을 주기로 했다. 추첨일은 다음달 8일이며 자세한 사항은 각 영업점과 광주은행 홈페이지(www.kjbank.com)에서 확인하면 된다. /정필수기자 bungy@kwangju.co.kr

광산 송산유원지에 '개구리 연못'

토공, 454평규모 소생태계 '비오톱' 조성

한국토지공사는 생태계 보전 협력을 활용해 광주시 광산구 황룡강권 송산유원지에 양서류 소생태계 생물서식처인 '비오톱(Biotope)'을 조성할 계획이라고 16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1천500㎡(454평)의 부지에 공사비 2억5천만원이 투입되며, 유원지내 개구리 생태연못, 실개천, 습지식물지, 관찰데크, 관찰로, 목교 등이 포함된 연구 및 자연학습 체험공간의 소생태계가 조성된다. 토공은 이번 사업이 내년 상반기 중 착수되면 일정한 수중환경과 습지에서 서식하는 개구리류와 먹이사슬 종들인 곤충류·여류 등이 유입돼 생물종의 다양성이 증대되는 물론 자연환경 복원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토공은 송산유원지 외에도 도심내 환경보전사업의 일환으로 용인동백지구 3개 초등학교내 생태연못을 조성, 기부한 바 있다. 또 내년에는 경기도 지역 3개 초·중교 및 충청북도 지역 2개 초·중교에 생태연못 소생태계 조성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설계용역을 시행할 계획이다. /최경호기자 choice@kwangju.co.kr

3분기 광주·전남 경제지표 좋은데…

체감경기는 여전히 '썰렁'

생산·수출 증가 불구

고용 사정 개선 안돼

올해 3분기 광주·전남지역은 제조업 생산과 수출 증가세에 힘입어 경제지표는 호전됐지만 고용사정 개선 지연 등으로 체감경기는 썰렁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가 발표한 '광주·전남지역 경제동향'에 따르면 올해 3분기 제조업 생산은 광주가 자동차와 반도체 수출 호조 등의 영향으로 전년 동기대비 13% 증가하는 등 4분기 만에 증가세를 기록했다.

수출도 주력제품의 신장에 힘입어 전년 동기대비 각각 광주는 26.3%, 전남은 28.1%씩 늘었다. 특히 광주지역은 9월 중 수출액이 9억달러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대형소매점 판매 증가율도 1년전에 비해 광주가 10.8%, 전남이 25.0% 증가하는 등 소비도 회복세를 보였다. 대형 소매점 판매 증가는 광주·전남 모두 새

로 입점한 대형마트의 영향이 커다.

그러나 소비심리는 여전히 위축돼 지역 소비자들의 생활형편 전망지수인 CSI는 2분기 88에서 3분기 81로 하락했고, 소매유통업체의 경기전망지수(BSI)도 2분기 112에서 3분기 98, 4분기 88로 하락세를 지속했다.

고용사정은 실업률 하락에도 불구하고 경제활동참가율이 떨어지면서 취업자수가 전년동기에 비해 광주가 1천명, 전남이 5천명씩 줄어들었다. 특히 광주는 2003년 4분기 이후 처음으로 취업자수가 감소했으며 청년실업률이 10.5%로 전국 평균(7.5%)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이밖에 물가는 도시가스·버스요금 등 서비스가격은 상승했으나 농축수산물 가격 하락으로 상승률이 2.5%로 안정세를 유지했고, 부동산도 나주 등 일부 개발예정지역을 제외하고는 매수심리 위축으로 주택과 토지가격 모두 소폭 증가에 그쳤다.

/정필수기자 bungy@kwangju.co.kr

광주·전남 중기협동

전국에서 첫 개소

전국에서 맨 처음 결성된 광주·전남중소기업협동조합연합회(회장 장춘상)가 16일 개소식 갖고 업무를 시작했다.

광주·전남중소기업협동조합연합회는 이날 광주 광산구 도천동 광주시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서 김용구 중소기업중앙회장, 박광태 광주시장, 김종철 전라남도의회회장 등 기관장과 회원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소식을 가졌다.

가구·인쇄·레미콘·아스콘·농약판매·광고·의료판매·재래시장·슈퍼마켓·식품·기계·알루미늄 등 광주·전남 22개 중소기업종합조합 이사장들은 최근 광주에서 모임을 갖고 그동안 중소기업종별로 개별활동을 펼친 바람에 조합원들의 이익을 제대로 대변하지 못했다고 판단, 온전한 권익대변을 위해 전국 최초로 이 연합회를 창립했다.

/이종태기자 jtlee@kwangju.co.kr

'전남 생물센터' 中 조동시와 업무 제휴

전국에서 첫 개소

전국에서 맨 처음 결성된 광주·전남중소기업협동조합연합회(회장 장춘상)가 16일 개소식 갖고 업무를 시작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니에겐한 조동시장, 대체에너지 개발업체인 센텍 이명섭 회장 등 10여명이 참석했으며, 이들은 양쪽의 정보교환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내용을 논의했다.

이황희 지원센터소장은 "조동시의 우수농산물을 식품으로 가공, 수출을 지원

하는 식품사업화 기반을 구축할 계획"이라며 "이를 기반으로 조동시 농업을 러스터를 조성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전라남도생물산업지원센터는 전남도와 나주시가 공동 출자해 전남도의 전략산업인 생물산업 중심으로 육성하기 위해 지난 2003년 착공, 을 4월 말에 문을 열었다. 공동설립을 비롯해 벤처기업 기업보육실·전시실, 신제품을 시험 생산할 수 있는 첨단시설 등을 보유하고 있다. /이종태기자 jtlee@kwangju.co.kr

지방소재 대형 유통마트

지역산품 판매 의무화 추진

열린우리당 김재홍(金在洪) 의원은 16일 지방소재 대형 유통마트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일정 비율의 지역산품 판매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대형유통업 특별법' 또는 '유동산업 발전법' 개정안을 정기국회 회기 중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법안 제출에 앞서 17일 전북 익산 원광대에서 '대형 유통마트와 지역경제 상생방안'을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토론회에서 김 의원은 대형마트의 매출액 분사송금 제한, 현행 등록제의 허가제 전환, 지역경제상생협의회 가입 의무화 등을 담은 개선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임동욱기자 tum@kwangju.co.kr

침아된 구조물복원 및 연약지반 강화공법의 신개념

